



1. 플랑드르 지방

1) 원거리 무역(13c)

- * 북유럽 교역권: **한자 동맹** (뤼베크, 함부르크 등의 북부 독일 참여)을 중심으로 북해, 발트해 무역 독점 (cf. **플랑드르 - 모직물 공업 중심지**)

2) 백년 전쟁(1337-1453)

- * 원인: 프랑스 내의 영국령 지배권, **모직물 공업 중심지인 플랑드르** 지배권 대립
- * 과정: 프랑스 카페왕조 단절 → 영국 왕(에드워드 3세)의 **프랑스 왕위 계승권 주장**
→ 프랑스 발루아 가문 vs 영국 왕(에드워드 3세) → 백년 전쟁 발발

자료 플러스 : 백년 전쟁의 시작

발루아 가문의 필리프, 스스로 프랑스 왕이라 칭하는 자여, 나는 당신에게 프랑스의 적법한 지배권이 바로 영국에 귀속되어 있음을 수차례 일깨워 주었도다. 그럼에도 당신은 이에 대한 합당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였도다. …… 이에 나는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과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통치권을 확립하고자 전면전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

영국과 프랑스가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인 **플랑드르** 지방과 프랑스 내의 영국령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대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 왕이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백년 전쟁이 발발하였다.

2. 알자스 - 로렌 지방

1) 베스트팔렌 조약(1648) ← 30년 전쟁(1618-1648)의 결과

- * 개인의 종교 선택권, 칼뱅파 인정
 - ※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 집단(제후)의 종교 선택권 인정, 루터파 인정
- * 스위스, 네덜란드 독립
- * 신성로마제국 사실상 해체
- * 프랑스의 알자스-로렌 지방 획득 (신성로마제국 → 프랑스)

2)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1870-1871)

- * 결과 ① 빌헬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선포, 황제 즉위 (재상- 비스마르크)
② 프랑스의 50억 프랑 배상, 알자스-로렌 지방 할양 (프랑스 → 프로이센)

3) 베르사유 조약(1919.6): 전승국과 독일 간 체결

- * 독일의 모든 식민지 상실
- * 알자스-로렌 프랑스에 양도
- * 군비 축소 및 배상금 지불

→ 베르사유 체제 성립

3. 슐레지엔 지방

1)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프로이센 vs 오스트리아)

- * 마리아 테레지아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 프로이센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슐레지엔 요구 → 오스트리아의 거부 → 프로이센의 슐레지엔 침공
- * 프로이센 (- 프랑스) vs 오스트리아 (- 영국)
 - 프로이센의 슐레지엔 획득, 마리아 테레지아 왕위 계승 인정

2) 7년 전쟁(1756-1763)

- * 마리아 테레지아 슐레지엔 반환 목적 (+ 식민지 이해관계가 얽힌 각국 참여)
- * 프로이센 (- 영국) vs 오스트리아 (- 프랑스, 러시아)
- * 프로이센 vs 오스트리아 → 프로이센 승리 → 슐레지엔 반환 X
- * 영국 vs 프랑스 (ex. 플라시 전투)(1757) → 영국 승리 → 북아메리카, 인도 차지
 - ※ 영국의 재정난 심화 → 식민지에 각종 세금 부가, 중상주의 정책 강화 → 미국 혁명

4. 홀슈타인 지역

1)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1866)

- *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1848.5-1849)
 - 대독일주의(오스트리아 중심) vs 소독일주의(프로이센 중심) → 협상 결렬
- * 비스마르크 프로이센 재상 취임 → 철혈정책
- * 프로이센 vs 오스트리아(1866)
 - 프로이센 승리 → 북독일 연방 결성 (오스트리아 x), 홀슈타인 지역 획득